

FSC : Full Service Carrier
LCC : Low Cost Carrier
HSC : Hybrid Service Carrier
CC : Cargo Carrier



항공사 4가지 종류 특징

FSC/LCC/HSC/CC

airviewkorea.com

국내 항공사 특징별 분류

- 대형 항공사 (FSC, Full Service Carrier) :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
- 저비용 항공사 (LCC, Low Cost Carrier) : 제주항공, 진에어, 티웨이항공, 이스타항공, 에어부산, 에어서울, 플라이강원, 에어로케이
- 하이브리드 항공사 (HSC, Hybrid Service Carrier) : 에어프레미아
- 화물 항공사 (CC, Cargo Carrier) : 에어인천



1. 대형 항공사 FSC (Full Service Carrier)

- 대한항공 (KOREAN AIR) : 154대
 - 아시아나항공 (ASIANA AIRLINES) : 82대
-

장점

- Full Service, 말 그대로 티켓 값 내에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중장거리 비행 시 기내식을 먹을 수 있고, 단거리 노선에서는 가벼운 음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좌석 간 거리가 넓어 상대적으로 편하고, 기내 비디오 시설을 통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.
- 타항공사들과 항공연합이 맺은 경우가 많아, 돌발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.
- 해당 항공사를 통한 직항편이 없어도 동맹 협력사편으로 경유, 환승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.
- 비즈니스석 이상 CLASS의 좌석을 구매할 경우, 국제선을 타기 전 라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
단점

- 다른 종류의 항공사들보다 항공권 가격이 비싸다

2. 저비용 항공사 LCC (Low Cost Carrier)

- 제주항공 (JEJU AIR) : 39대
- 티웨이항공 (T'WAY AIR) : 29대
- 진에어 (JIN AIR) : 25대
- 에어부산 (AIR BUSAN) : 25대
- 에어서울 (AIR SEOUL) : 6대
- 이스타항공 (EASTAR JET) : 3대
- 플라이강원 (FLY GANGWON) : 2대
- 에어로케이 (AERO K) : 1대

장점

-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다

단점

- 물 이외에 제공되는 음료나 식사가 없다. 별도 구매가 가능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.
- 좌석 간 간격이 좁아 불편하다.
- 국제선 이용 시 영화를 볼 수 있는 AVOD 장비가 없다.
- 비행기 수가 적다 보니 정비문제 등으로 지정된 비행기 고장 시, 대체 비행기 배정이 늦어질 수 있다.



3. 하이브리드 항공사 HSC (Hybrid Service Carrier)

- 에어프레미아 (AIR PREMIA) : 1대
-

장점

- FSC 처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
- 장거리 여행을 중대형 신형 기종 B787-9을 타고 합리적인 가격에 갈 수 있다

단점

- 2021년에 비행기를 1대 도입한 신생항공사로, 정비 결함 등 돌발상황 시 대처 어려움
 - 장거리 비행 경험 부족, 예상하지 못한 변수 발생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
-



4. 화물 항공사 (Cargo Carrier)

- 에어 인천 (AIR INCHEON) : 3대
-

여객기 없이, 화물만 운송하는 항공사입니다.